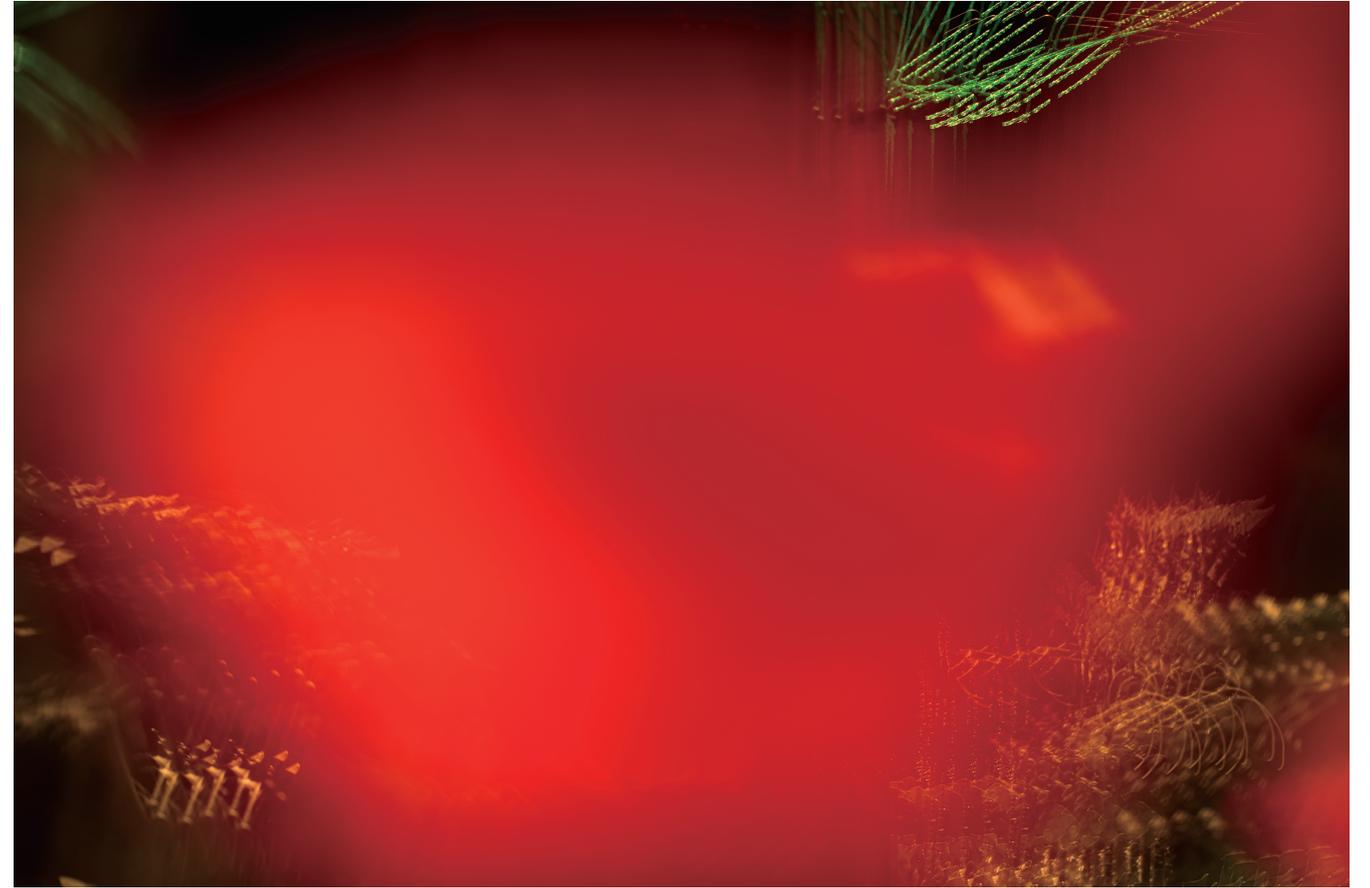


뜰 안에는...

이다경

뜰 안에는...



뜰 안에는...

이다경

이다경

딸 안에는...

이다경





## 뜰 안에는...

이다경

태어나 최초로 기억하는 공간에  
식물이 있었고  
나의 아버지는 그 식물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계셨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  
사는 동안 식물은 나의 친구였고 연인이었다

식물은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옥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꽃시계는 멈춰있는 법이 없다  
시간시간 다채로운 표정들과 교감하며 문득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졌고  
마침내 식물은 나를 사진가로 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수줍게 꽃받침을 비집고 나오는 꽃잎의 애씀도  
꽃망울을 터트리고 마침내 고운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도,  
나를 웃게 만들고

비로소 내뜰 안의 식물들과, 거미줄과, 기온의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이 만들어주는 물의 형태들은  
나의 작품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내 뜰 안의 작은 공간 속에서  
시간이 주는 빛의 리듬을 느끼며  
빛과 그림자 배경이 만들어내는 형태적 구성을 이용한 문법을 추구했다

에드워드 월슨 교수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녹색갈증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회색빛 빌딩 숲 속에서의 지친 인간들은 녹색 숲이나  
기하학적인 형태의 꽃문양 속에서 치유를 원한다

작은 풀꽃 하나와  
작은 나무 한 그루는  
몸살을 앓는 지구의 치유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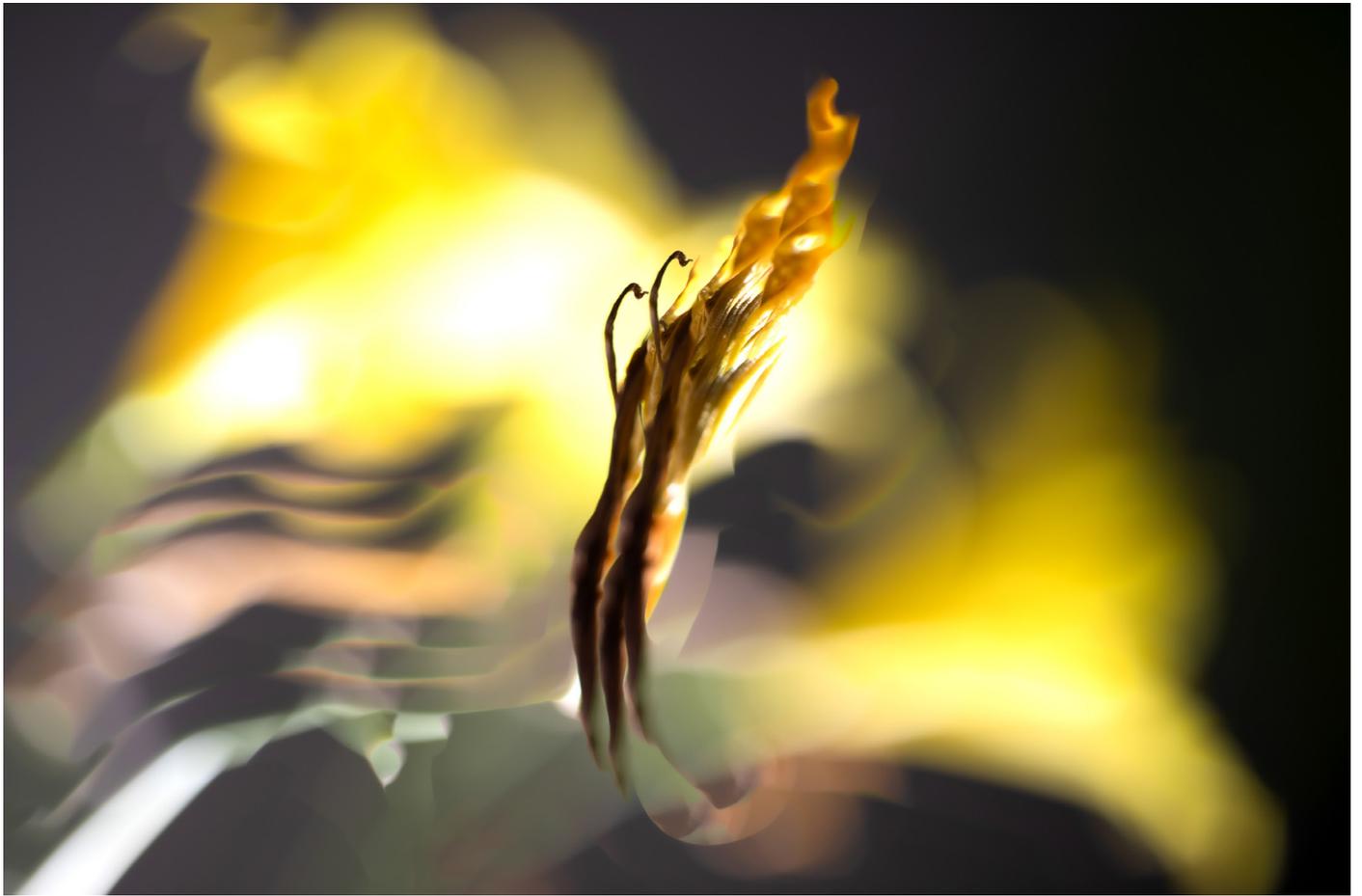
바삐 움직이는 5월 꽃시계의  
초침 소리와 사랑사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빨강, 초록, 노랑, 분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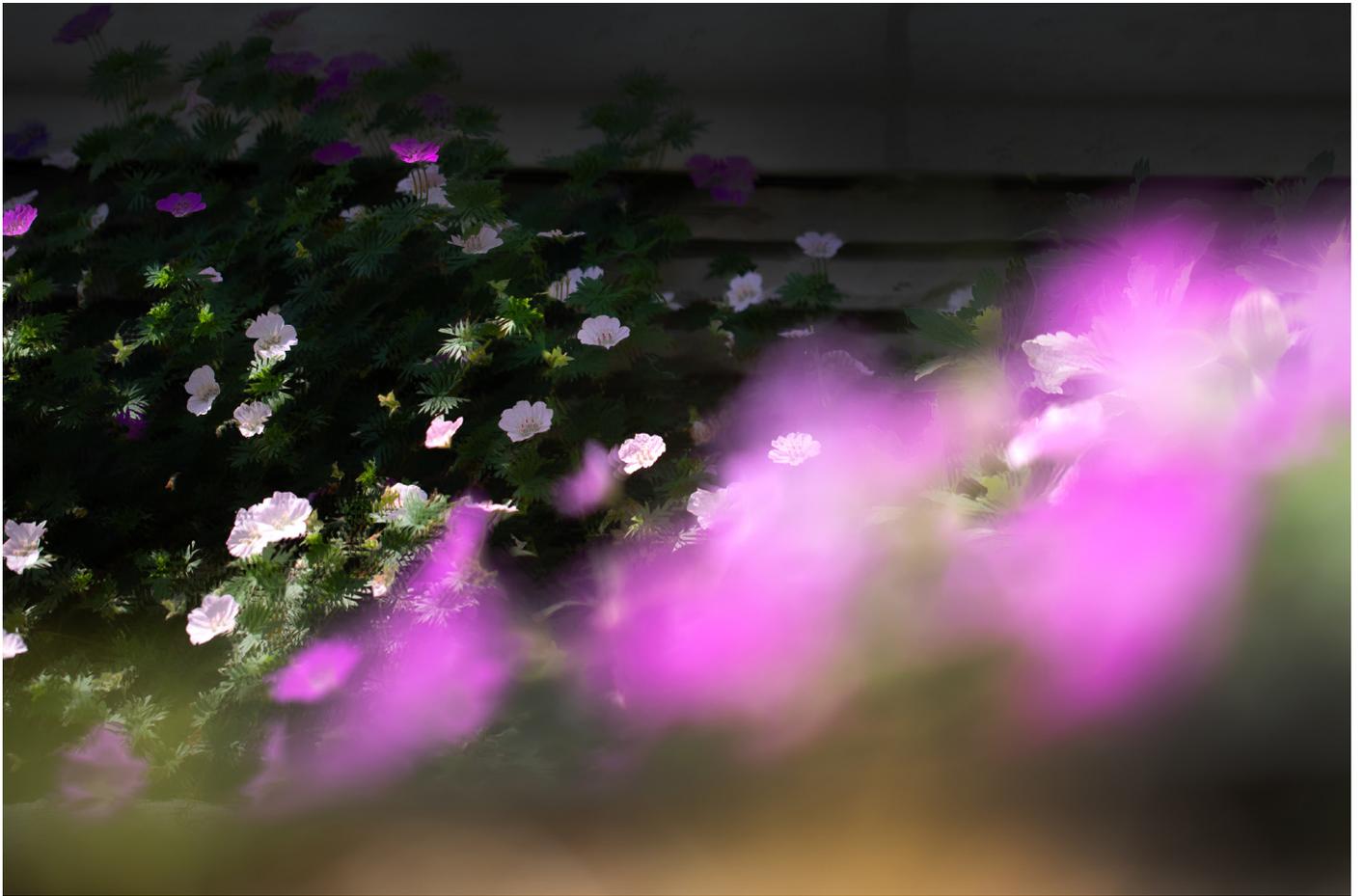
색과 색이 혼합되고  
그 현란함은 내 마음속을 파고들어 떨림으로 다가올 즈음  
묘한 현기증으로 초침 소리와 함께 꽃길을 걷는다.

“현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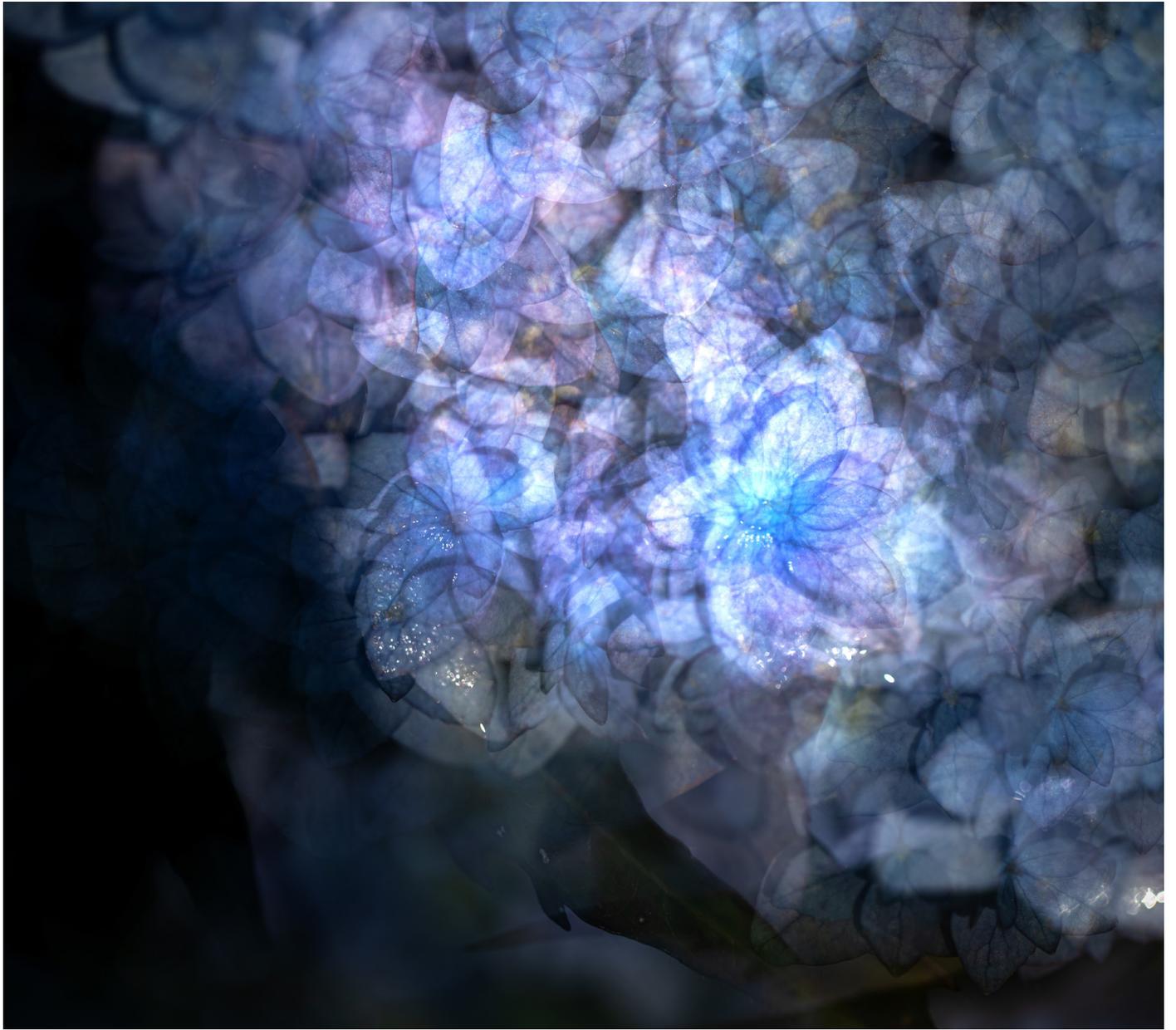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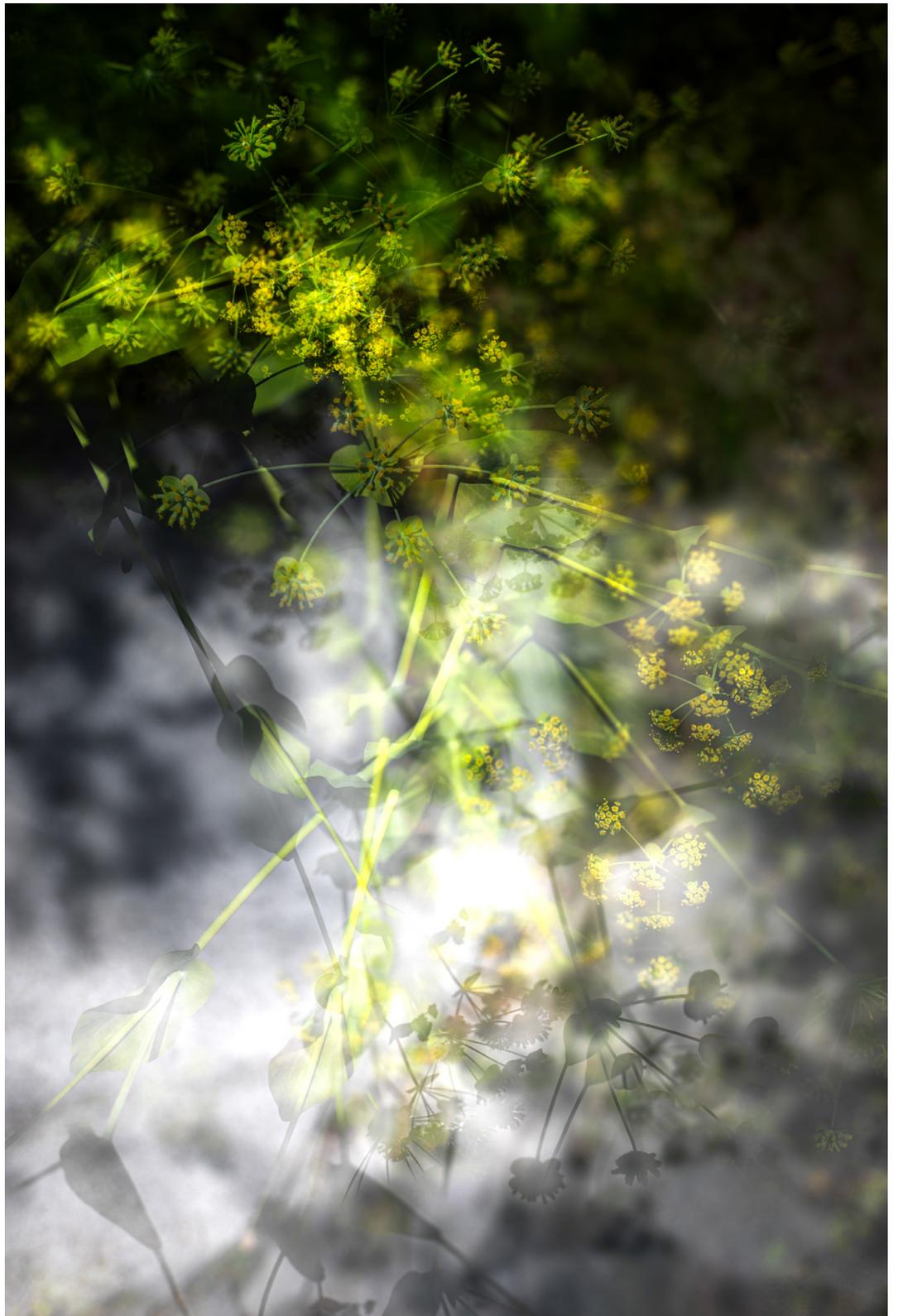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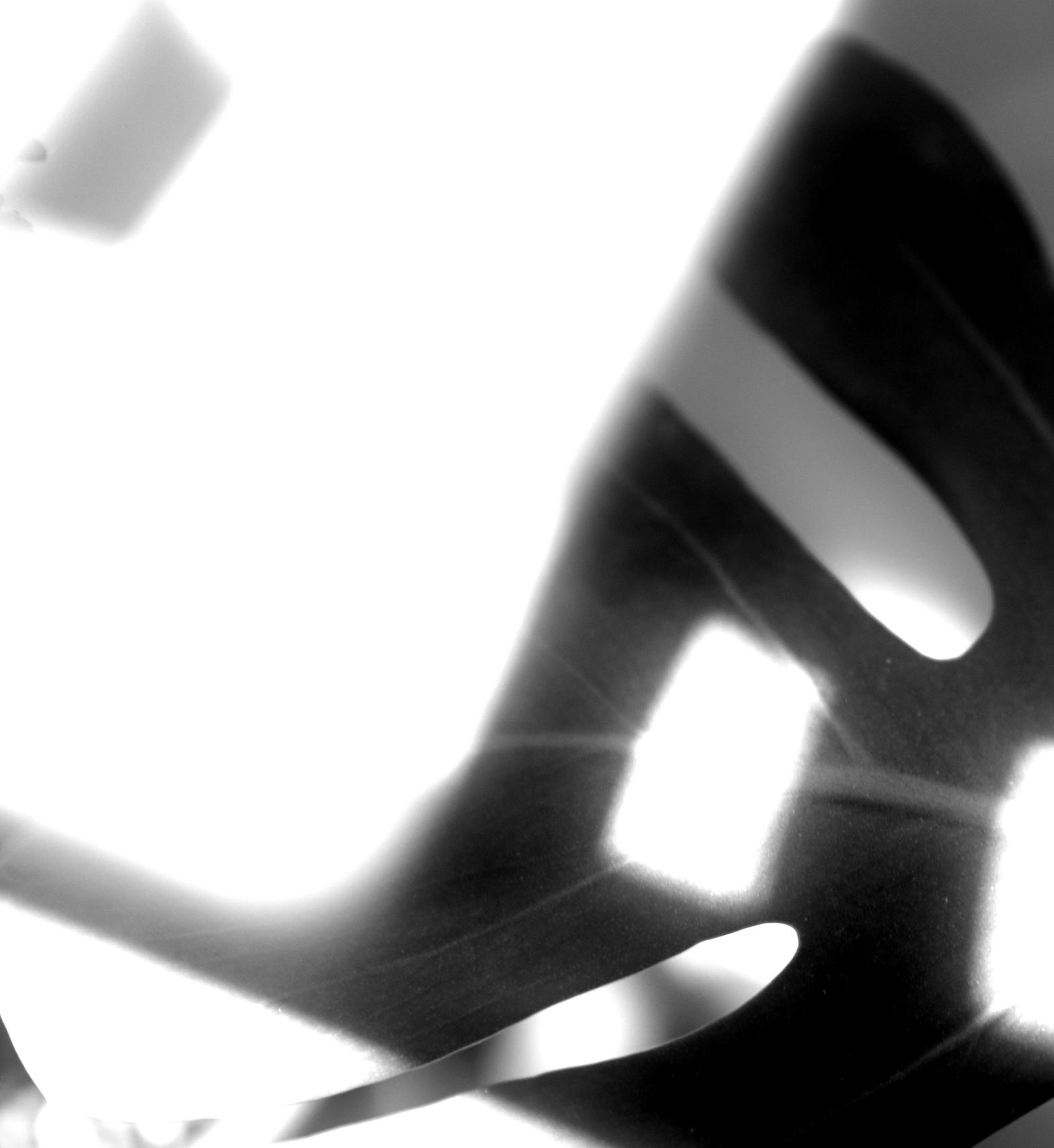




그림자는 지상의 모든 물체에 형성된다  
밝음과 대비되는  
어둠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  
의식 뒤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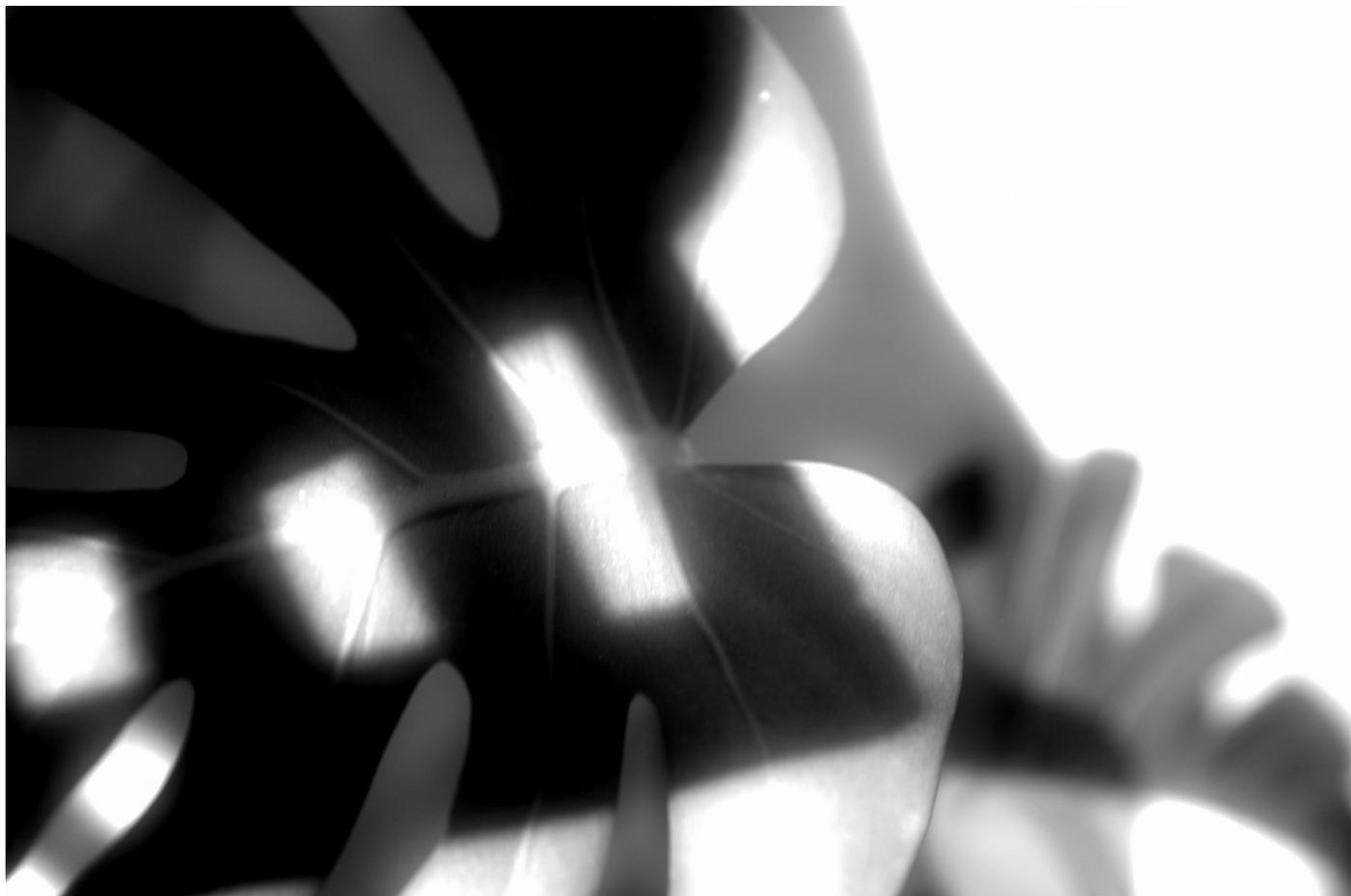
사물을 통과하지 못해 형성되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나의 의식 뒤에 자리한 무의식을 바라본다.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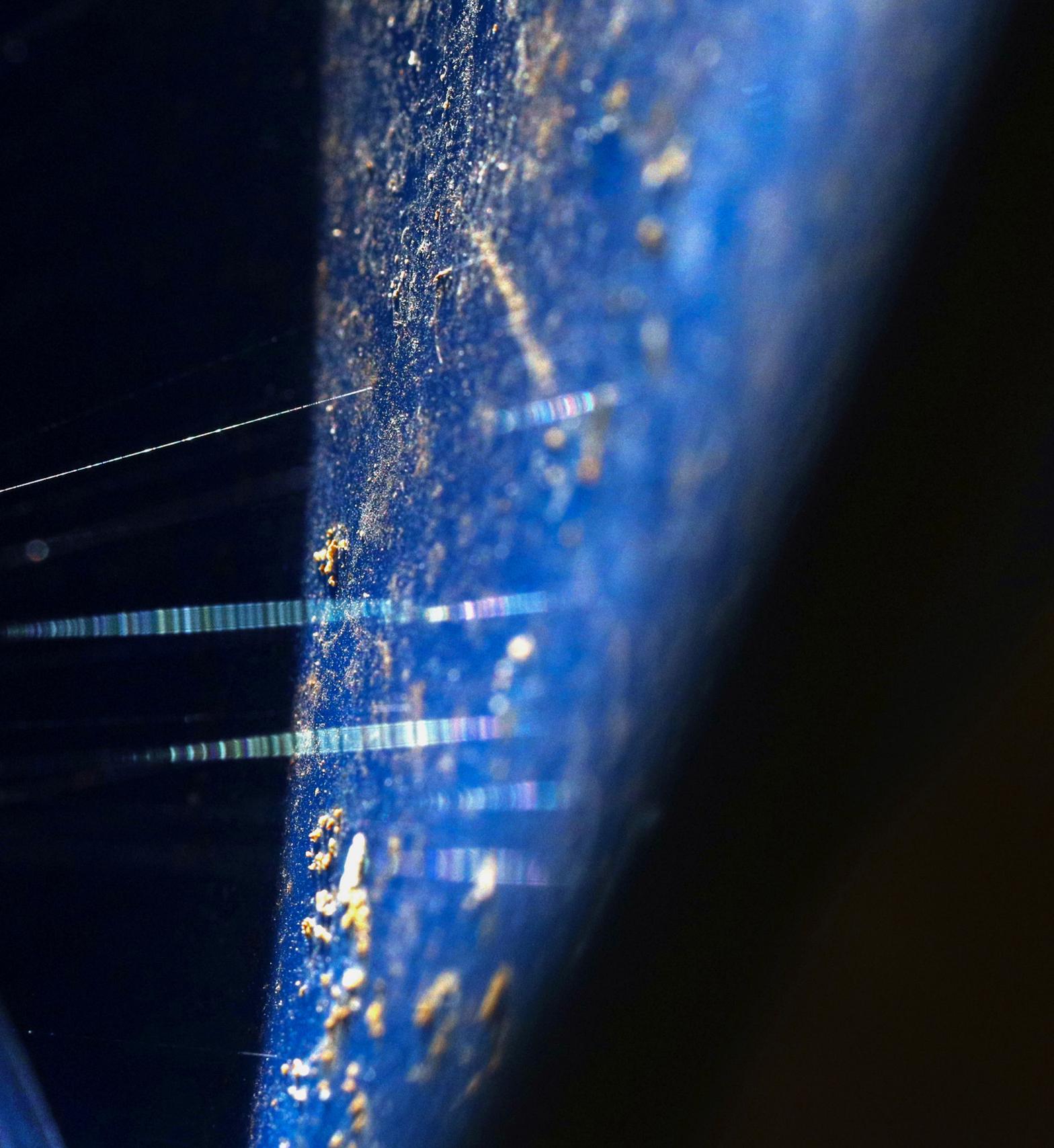
그런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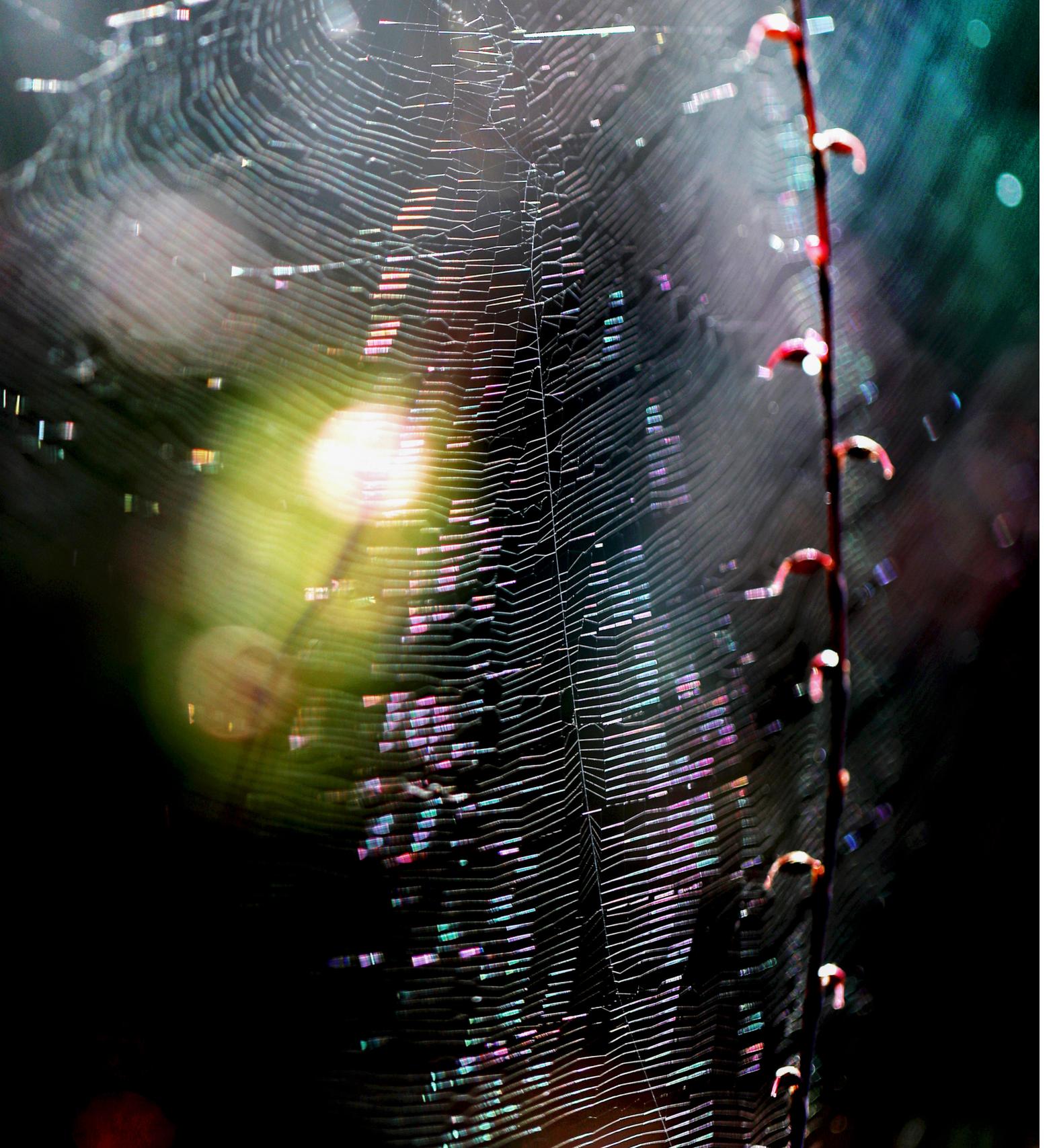
2024년을 살면 그래도 되는줄 알았다  
늘 빈공간을 메울수 없음을...

현란한 빛에 의한 간섭을통해 깨닫는다  
하나됨의 가치를....

“혼밥하는 포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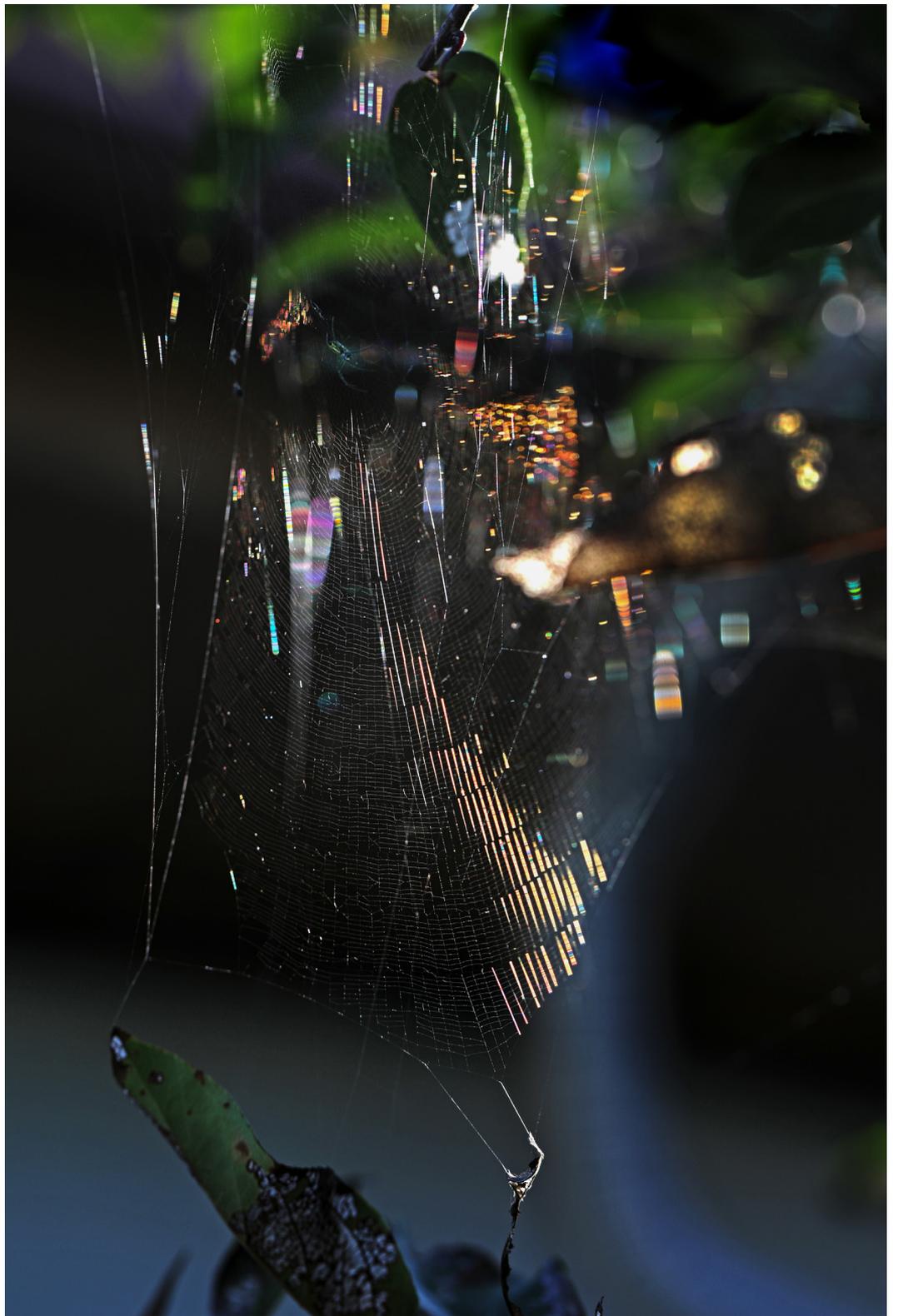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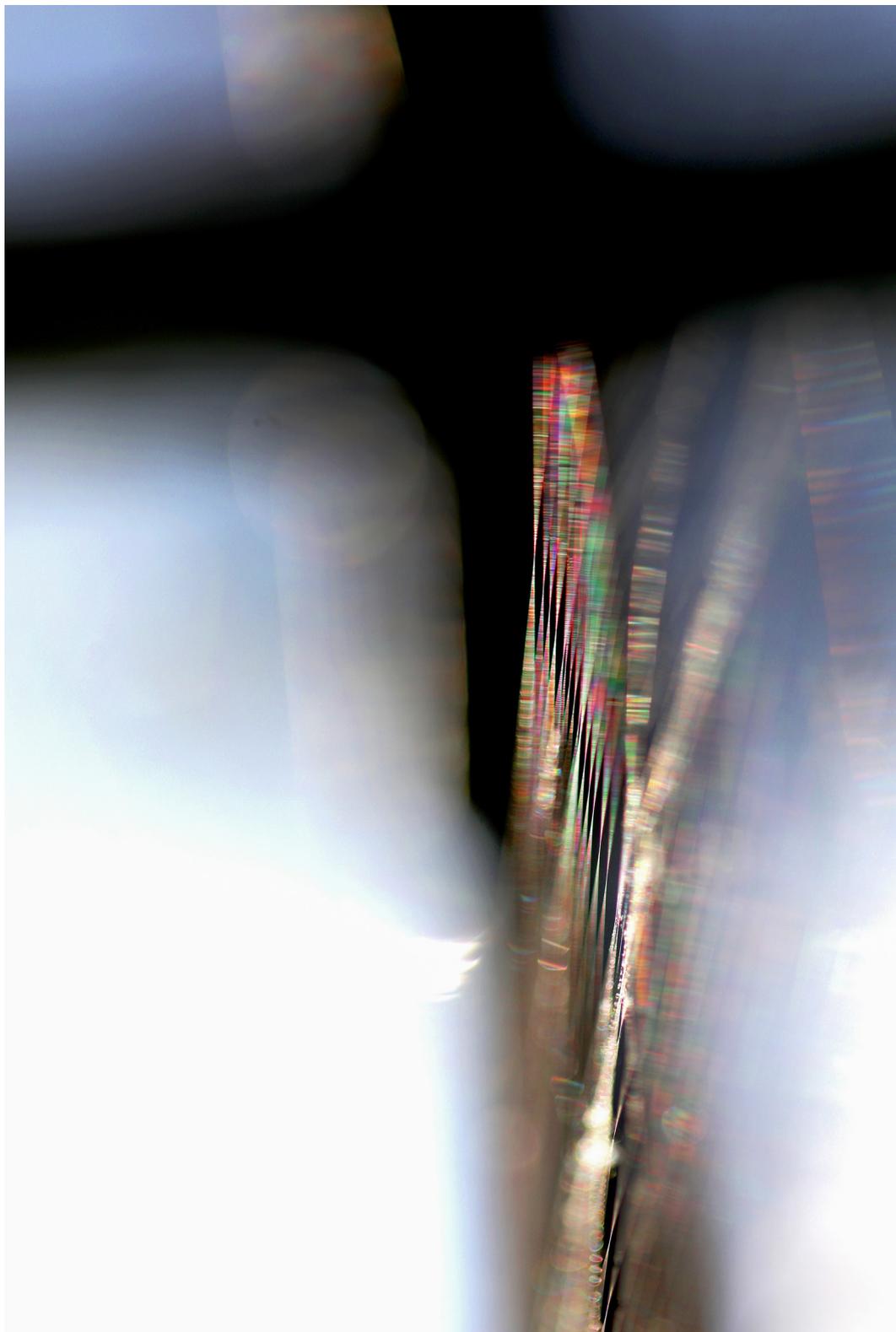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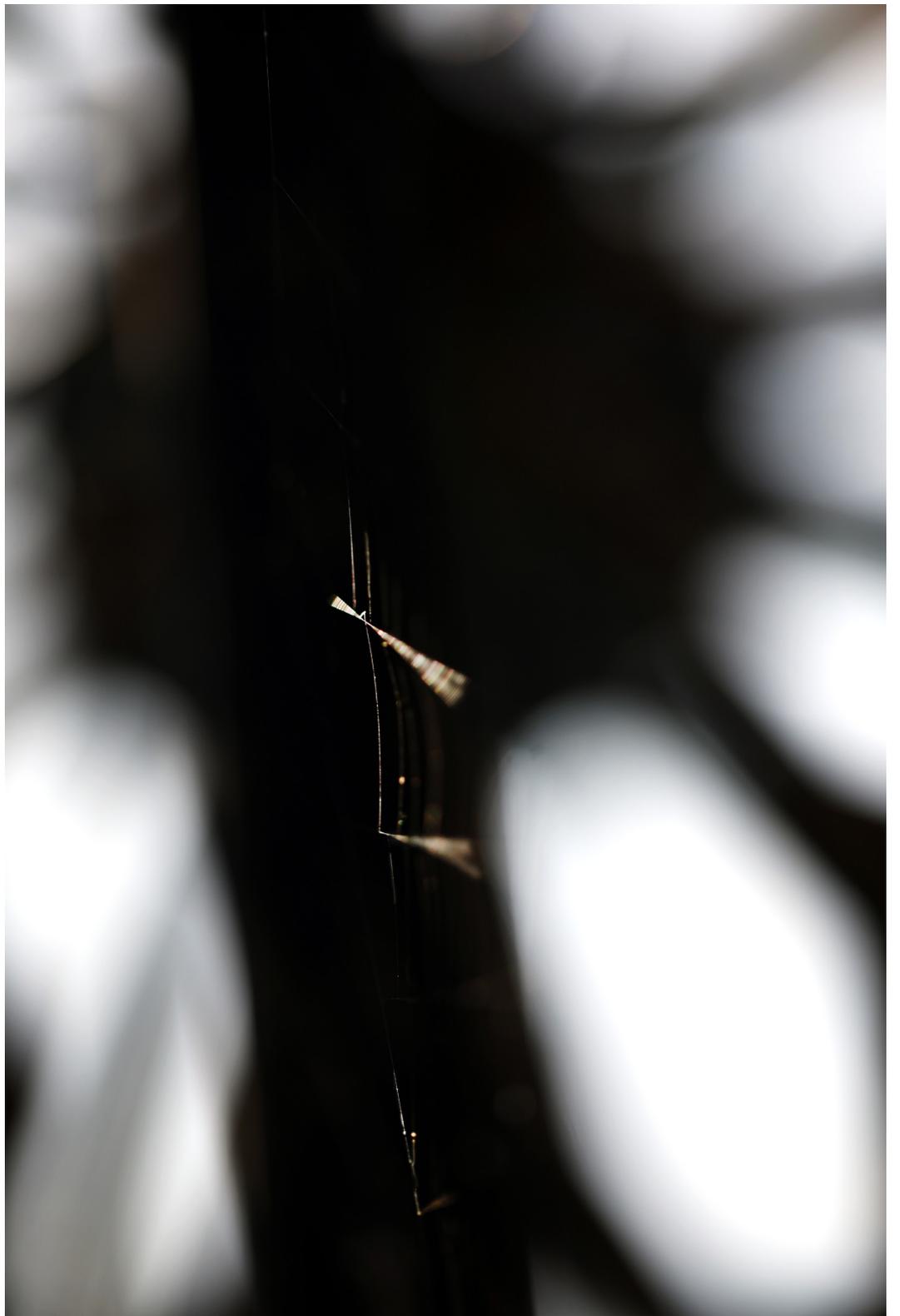












# 이다경

사진가

충북도립대학교 영상디자인과 재학  
동그라미사진연구회 회원

## 개인전

2024 뜰 안에는... 옥천전통문화체험관

## 단체전

2024 The Korea Gaza, 반특 아트 센터 (태국, 치앙마이)  
2023 빛 그리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 뜰 안에는...

이다경

옥천전통문화체험관

2024년 6월 17일 - 6월 23일

\* 도록에 수록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이다경에게 있으며, 별도 사진 사용을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